



## 책 읽기 전도사, 그는 오늘도 책을 말한다



책 프로그램은 지지해야 한다. 고전과 남문을 깨고 책의 대중화를 이룬 프로그램이라면 단연 문화방송의 느낌표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이하 느낌표)이다.  
독서 프로그램의 틀을 깨고 개그맨까지 등장시킨 이 프로그램에서 무계종사자를 잡아주는 출판전문가 한 명이 있다.  
탐라대 출판·미디어학과 김재운 교수가 바로 그이다.

제주가 고향인 그는 부모가 감귤 농사를 짓던 시골에서 자랐다.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그에게 책이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로선 귀했던 세계명작전집을 사주었던 어머니로 인해 일찍부터 책의 매력에 빠져 살았다. 이런 그에게 판에 박힌 지식만을 전달하는 학교가 재미 있을 리 없었다.

그가 '독서광' 시기로 접어든 때는 고등학교 때다. 상위권에 속했던 성적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치달았다. 그는 이미 그 무렵 《천국의 열쇠》《카라마조프家の 형제들》《역사란 무엇인가》 등을 독파했다. 그에게 책이 선생님이자 인생을 바꾼 존재였다. "다른 학생들이 학과공부에 매달려 있을 시간에도 수학공식에 시를 대입하여 외우기도 했죠. 삭막한 학교생활에서 책은 하나의 돌파구였습니다. 그때 공부만 열심히 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출판미디어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간혹 책 관련 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석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책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마니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책을 전혀 안 읽는 사람들을 위

한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평소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독서인구의 확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문화방송에서 연락이 왔죠." 그렇고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고 나갔던 자리였다. 그런데 작가가 속한 곳이 예능국이었다. 예능국에서 독서 프로그램은? 그에게 이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이 보였다. 결과는 대중성에 있어서만큼은 대성공이었다.

김 교수는 느낌표의 역할이 쓴 약을 먹이기 위한 사탕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정작 몸에 좋은 약은 보지 못하고 사탕 탕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는 반문한다. 하지만 느낌표에 선정된 도서만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현상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독자층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느낌표에서는 세대간의 갈등을 줄이고 좀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는 일관된 기획의도로 보편타당하게 읽힐 수 있는 책을 선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독자들은 자기 눈 높이에 맞는 책을 골라서 읽어야 합니다. 단지 느낌표 선정도서라는 이유만으로 책을 사서 읽으면 안 되죠. 저희는 독자들이 느낌표에 편향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초를 제공할 뿐이죠."

느낌표의 공익적 역할을 칭찬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선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느낌표 도서의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책읽는 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에서 추천을 받아 1차 선정위원을, 내부인원으로 2차 선정위원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김재윤 교수는 ‘우려하듯이 출판사 로비나 선정위원끼리의 담합은 선정위원들도 자신 이외에 누가 선정위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느낌표가 오랜 생명력을 가진 프로로 살아남아 독서운동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취약하기 그지없는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그렇다면 왜 하필 어린이 도서관이냐고. “이미 어른들의 사회는 회복불가능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도 여가시간마저 음주가무를 즐기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책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아이들이 컸을 때, 20년 정도 후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은 어른들에게 맞춰 있다. 어른용 도서관에 아동서적이 있을 뿐이다. 도서관 건물 구조 자체가 어린이와는 거리가 멀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편안하고 안온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려면 바닥에 뒹굴면서 뛰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것이 지요.”

『세계 끝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독자가 없으면 출판사도 없었습니다.

독서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책판스케치』

독서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지속되어야 한다.

아직은 취약하기 그지없던

독서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지속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독서운동에 참여하고

오랜 생명력을 가진 프로로 살아남아

그는 느낌표가



독서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지속되어야 한다. “출판인들도 독서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독자가 없으면 출판도 없습니다. 그게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지요.”

방송은 허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곁에서 직접 지켜본 김 교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스태프들도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녹화는 대개 하루 종일 합니다. 김용만, 유제석 씨가 잘나가는 연예인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스케줄에 쫓겨 줄면서도 책들을 보더라도요. 김영희 책임프로듀서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책에 대한 애정들이 대단한 편입니다. 자신을 지탱해 주는 힘이 책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됐다는 말들을 하곤 하죠.”

그는 또한 책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선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음지에 있어도 양지를 잊지 말아야 하고, 양지에 있어도 음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느낌표에서 현재 활발히 펼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 기획의도와 맞물린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책을 충분히 살 수 있죠.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소한 도서관이 소외된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는 거죠.”

누군가 말했다. ‘전개맨(전문가+개그맨)’ 처럼 전문가를 등장시킨 다음 희극배우처럼 만드는 프로그램도 많다. “그게 스태프들에게 제가 고마워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재미를 위해서 저를 희화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조금 무리한 것을 시킨다 해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 문화전사를 자청한 마당에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책을 읽는 문화를 가지게 된다면 하지 못할 일이 그에겐 없어 보였다.

그는 느낌표의 영향으로 게임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아이들의 손에 책이 쥐어지는 것을 보고 무한한 감동을 받았다. 느낌표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은 단지 프로그램 자체의 안위를 위함이 아니다.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귀한 존재인 책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라는 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

취재 김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